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7. 7 | Vol. 271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법왕사
조계종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백중(우란분절) 영가천도 49재

정유년 백중(우란분절) 맞이 영가천도 49재가 7월 19일 입재하여 음력 7월 보름인 9월 5일에 회향합니다.

우란분절은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존자가 지옥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양하여 어머니를 구했다는 유래가 있는 불교의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 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사경책을 한 권씩 정성들여 베껴 회향일에 불사르는 의식을 올리게 됩니다. 불자들께서는 모두 수희동참하시어 선망부모의 왕생극락을 기원하시고 크나큰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기 도 입재 7월 19일(음. 윤5월 26일)
초재 7월 25일(음. 6월 3일)
이재 8월 1일(음. 6월 10일)
삼재 8월 8일(음. 6월 17일)
사재 8월 15일(음. 6월 24일)
오재 8월 22일(음. 7월 1일)
육재 8월 29일(음. 7월 8일)
막재 9월 5일(음. 7월 15일)

준비물 속옷 - 런닝, 팬티, 양말, 기타
겂옷, 신발(짚신) - 사중에 준비
세면도구 -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대야
공양미 - 3되3홑 또는 15,000원
수자령 - 분유, 배냇저고리, 과자, 유아
복, 장난감 등

재일은 매주 화요일

문 의 법왕사 766-3747, 9088

※ 동창금은 영가 1위당 1만원입니다.

※ 매 재마다 재물(과일, 떡)을 공양하실 분은
종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영혼결혼식 접수받습니다.



영혼결혼식은 생전에 결혼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젊은 남녀 영혼들을 사후에 저승에서 부부의 연을 맺어주어 사람으로서 마땅히 거쳐야 하는 통과례인 결혼이라는 일생의례를 지나게 해 주는 의식입니다.





Vol. 271호

- 04 깨침의 향기**
부모님 은혜의 보답은 아무리 빨라도 늦다(1)
· 원공당 정무 대종사
- 06 비슬산방**
집착과 분별 넘어야 진정한 깨달음 얻어
· 실상 주지스님
- 08 법왕논단**
지혜 없는 지식은 삶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 본원스님
- 12 불교의 보살들**
청정한 법보 배풀어 풍요로운 삶 누리게 한다
- 16 명찰 순례**
선(禪) · 다(茶) · 음(音)의 근본도량 지리산 하동 쌍계사
- 20 부처님 십대제자**
지혜와 신통력으로 세상을 밝히다
- 24 해오름 요양원 - 함께 알면 좋아요**
치매치료, 보건복지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탈수예방에 대하여 · 김필남
뇌졸중(stroke)이 궁금해요
- 28 법왕사소식**
- 30 법왕사게시판**
- 32 해오름소식**
- 33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_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_대구, 라 07721 | 발행처_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_불기 2561(서기 2017)년 7월 01일 발행 | 통권_271호 | 종무소_T. (053)766-3747·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_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_강영도 | 편집위원장_원인스님 | 편집위원_묘도, 영일, 상철, 자행, 자운, 강선옥 | 기획·제작·디자인_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란합니다.

부모님 은혜의 보답은 아무리 빨라도 늦다(1)

원공당 정무 대종사



내 나이 열 살 때, 어머니는 앓고 일어설 때 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신음소리를 연신 토해냈습니다. 다리가 아파 간신히 일어 서면서 어머니 자신도 모르게 내지르는 단 말마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어머니의 그 신음소리의 뜻을 전 이제야 겨우 알게 되었습니다. 내 나이 지금 일흔 아홉입니다. 일흔 아홉이 되어서 관절이 아파보니 비로소 그 때 어머니가 소리쳤던 그 신음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일에 모든 것이 그저 늦기만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이해하거나 고마워하고 감사할 기회를 그만 놓치고 맙니다. 겨우 알거나 깨닫고 보면 이미 부모는 우리들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누구나 소년시절부터 선현들의 이런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서도 깨닫지 못해 차일피일하다가 끝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자신의 인생 황혼길이 되어서야 간신히 알다니, 안타깝고 한심한 일입니다. 이제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또 ‘넘어지고, 엎어지고, 꺼꾸러지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말은 일찍부터 경험하여 알 수 있는 말인데, ‘꺼꾸러지고’ 라는 말은 젊은 시절에는 도저히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 다리가 저절로 꺾여 주저앉아 보지 않으면 그 말의 참 뜻을 모릅니다. 저는 ‘꺼꾸러지고’ 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금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

습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내 무릎이 푹 꺾
이었으니 말입니다.

내 어머니는 자그마치 팔남매를 슬하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막내 동생
을 무척 늦게 낳으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노산(老産)이셨습니다. 그때 막내를 낳으실
때 어머니가 고통스러워 몸부림치시는 것을
나는 보았고, 지금껏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
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것처럼 몸부림치시
는 그 고통의 광경을 저는 도저히 잊을 수
가 없습니다. 방을 데굴데굴 구르면서, “나,
죽는다!”고 고함을 치시고, 시령대를 두 손
으로 움켜잡고 몸부림치시던 그 가여운 모
습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을 낳
으실 때도 그런 고통을 겪으셨을 테니까 말
입니다. 바로 나이가 들어도 그 광경을 잊지
못하고 더 훤히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아버지는 69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1951년입니다. 이 나라 어딜 가도 먹고살기
힘든 때였고, 굶주려 눈들이 모두 캥하여
깊숙할 때였습니다. 입에 풀칠도 못할 때 우
리 어머니는 남편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팔남매를 두고 먼저 가신 당신은 참 좋겠
소. 복도 많소.”하고 부러워하듯 한탄했습
니다.

저는 내 나이 스물여덟이 되는 해, 그러니
까 1958년에 입산하였습니다. 제가 득도하
여 승복을 입고 고향에 가니, 어머니와 누
나, 동생들이 나를 빙 둘러 가운데 두고 통

곡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전라도에서는 출
가하여 스님이 되는 것을 집안의 수치스러
운 일로 몹시 부끄럽게 여길 때였습니다. 분
위기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달랐
습니다. 그러니 출가한 아들을 보고 반가워
하기는커녕 마치 내가 죽었거나 집안이 망
한 것처럼 대성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 서른다섯이 되어 어머니를 모시고
남도의 아랫녘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차례로
절 구경을 시켜드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
고 통도사에 이르러서 하룻밤 자고 그 이튿
날 아침예불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때 어머
니는 통도사 대중들의 청아한 예불소리를
들으시고는 “너, 출가 잘했구나!”하고 칭찬
하며 아들의 출가인생길을 늦게나마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여든여섯 되시는 해,
198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
실 때, 아들인 제 이름을 “이용술!”하고 부
르셨는데, 어머니는 “이정애!”하고 막내딸을
부르셨습니다. 전 지금도 아쉽고 후회스러
운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임종하실 때, 왜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리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어머니의
등을 받쳐드리지 못했을까 후회스럽고 심지
어는 제 자신이 미기까지 합니다. 제가 그때
못한 일을 남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부모를 모시는 아들딸들을 만나면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라고 아니, 반드시 받
아야 한다고 강권합니다.(계속)

집착과 분별 넘어서 진정한 깨달음 얻어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우리 불자들은 늘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행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종종 갖게 됩니다. 불교가 무엇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내가 과연 이생에 성불할 수 있을까? 나의 기도와 불공이 공덕이 있을까? 매 순간 이 같은 의문을 품고 가는 것이 중생의 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불교의 근본 또는, 출발은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교의 근본,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도(中道)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도의 길을 택하지 않았다면 깨달음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깨우친 내용은 연기법이지만 그 연기법에 따라서 많은 불교 철학이 나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깨닫게 만든 과정 방법은 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중도가 중요할까요? 현재 인류사회를 지배하는 지도적 이념은 다 서구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도 서구에서 만들어진 사상

이고 기독교와 이슬람교도 서구에서 시작된 종교사상입니다. 이들 사상은 항상 극단으로 치닫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충돌, 기독교와 이슬람의 반목 등 서구문명에서 발생한 사상들은 하나같이 대결과 반목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동양에서 발생한 사상은 어떠합니까? 불교나 유교에 양극단이 있습니까? 불교와 유교는 각기 성격은 다르지만 다 중용(中庸), 혹은 중도(中道)를 강조합니다. 유교에 있어서의 중용이란 A란 극단과 B란 양극단에서 중간을 취한 값을 말합니다. 즉, A가 10이고 B가 2이면 나누어서 6이 중용이란 것입니다.

중용을 분석해 보면, 중은 양극(兩極)의 합일점이고, 용은 영원한 상용성(常用性), 즉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희는 중용을 주석하기를, “중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대어 있지 않아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것으로서 인성(人性)이 지극히 중정(中正)하여 질서를 이룬 안정된 상태가 사물에 접하여 감이동(感而動)하기 이전의 인성본연(人性本然)을 나타내는 말이며, 용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평상(平常)됨을 나타내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불교의 중도사상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바른 길이라는 의미로서 초기불교부터 근본진리의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는 표

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어 대승·소승 각 교파에서도 중도야말로 불교적 진리관의 요체라는 의미에서 중도실상(中道實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치우친 수행법으로 반대한 것은 고행주의와 쾌락주의의 두 가지였습니다.

출가 전의 왕자로서 물질적으로 풍족하여 즐거움에 찬 생활을 보내고 있었으나 그러한 물질적 풍족함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석가모니는 출가 전의 낙행(樂行)도 출가 후의 고행도 모두 한편에 치우친 극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버리고 고행의 양면을 떠나서 심신(心身)의 조화를 얻는 중도에 설 때 비로소 진실한 깨달음의 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에 의해서 자각한 것입니다. 성도(成道) 후 함께 고행을 한 5인의 비구들에게 가장 먼저 설교한 것도 중도였습니다.

중도는 팔정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에 의해서 지탱되는 준엄한 도이며, 여기서는 나태·번뇌·노여움·어리석음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것에 집착하려고 하는 어떠한 일변도 모두 버려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진리가 모든 집착이나 분별의 경지를 떠난 무소득(無所得)의 상태에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지혜 없는 지식은 삶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본원스님 / 명상수행원



금생에 전생 일을 얹으로써 “전생에 진 빛 갇거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전생 빛은 전생에 이미 다 끝난 것이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내가 왜 그 빛을 갇아야 한단 말이나?” 이처럼 전생 사연을 안 것이 시비의 빌미가 돼 사이좋은 사람간 관계도 불편하게 만드는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고, 게다가 전생을 알면 전전생을 알아 또 따질 테고, 더 거슬러 올라가 오랜 옛일까지 시비삼아 들먹일 것이다. 그리되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모두가 온전히 제정신 가지고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엷히고썰킨 인과관계를 만든 인간행위를 생 각할 때면, 안동에서 나고 자란, 권씨 성을 가진 도반스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떠오른다. 이야기는 단순히 전해지는 설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 피눈물을 뿌린 비화로 써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는 지금도 그 곳 언저리에 자취로 남아있다.

조선 왕조 9대 성종(1470~1494) 연간에 일이다. 저 멀리 학가산이 보이는 깊숙한 산 촌지역 마을에 스님들이 속사정을 모를 채 시주하러 들어왔다가 독선과 배타적인 불

순한 유생들에게 아무 죄도 없이 봉변당하 기 일췌였고, 무도한 사림(士林)의 패거리에 잡혀 더러는 타살되어 암매장 당하듯 뼈를 묻는 경우도 있었다. 송유억불을 치국의 이 념으로 삼아 배불·척불이 극심했던 유학의 본고장 성리학이 발달한 옛 안동(영가) 땅 은 그런 곳이었다.

인륜을 저버린 패악이 공공연히 행해지 며 치밀하게 은밀히 이뤄지는 가운데 수년 전부터 인근 마을 부락 여기저기서 해마다 어김없이 불구(장애인) 아이가 하나씩 태어 나면서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불안에

힘싸인다. 이상한 일은 이뿐만 아니라, 눈곱이 끼어 앞을 가리는 안질이 역병처럼 번지면서 온갖 설이 난무하며 민심은 날로 흉흉해진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겹치는 괴이한 일에 당혹스러워 할 뿐, 달리 할 일이 없었다. 그러던 중, 길흥화복에 얽힌 일을 신통하게 잘 안다는 소문난 강신무(신내림을 받은 무속인)가 와서 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본 후, 이렇게 말한다.

“맺힌 원결(怨結)부터 풀도록 하시오. 과거 어느 시기에 수차례 무고한 사람을 해쳤고 그 원결이 맺힌 죄업의 과보”라고 하였다.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냐고 하였더니,

“천등산 아래 가면 작은 암자에 범상치 않은 한 스님이 있으니 거기 가서 물으면 아마도 해결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라는 말에 스님을 찾아가 자초지종, 그간의 일들을 자세하게 말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스님은 의미심장한 웃을 띤 후에 말했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묵은 자가 스스로 풀어야 하는 법, 늦긴 했지만 선대(先代)가 행한 죄를 뉘우치고 한 마음으로 치성을 올리면 오래잖아 굳어진 원결도 차츰 풀릴게 될 거요. 두꺼운 얼음이 녹으려면 그만한 시간이 걸리듯 업장이 두터운 만큼, 서서히 녹아내릴 게요. 자, 먼저 이곳에서 샘 솟는 석간수(바위틈에서 나오는 샘물)로 눈을 씻고 마시며, 그리곤 잊지 말고 내 일러준 그대로 하시구려.”

산골마을 부락민들은 암자 스님의 처방지시에 따라 선대가 지은 악행의 나쁜 기운을 풀고자 경내 석간수를 떠다가 눈을 씻고 마시며 마음으로 뉘우쳐 참회하는 동시에 불전에서 맺힌 원결을 푸는 채의식을 행하길,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나 하였고 그러기를 얼마나 지났을까…… 어느 날인가부터다. 무던히도 고생에 시달리게 하던 고질적 안질환이 가라앉으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차츰 낫게 되었을 뿐 아니라, 연중 통과의를 치르듯 1년이면 하나씩 태생적으로 나오던 장애아가 과실나무 해갈이 하듯 2년에 하나, 3년에 하나씩 나오는 등 스러지는 또렷한, 소멸 징후를 보이다 영 끊어진 것은 목욕재계하며 치성을 올린 지 9년이 지난 구한말 철종 무렵이었다.

전생 알면 혼란만 가중

악질적 선대의 죄업으로 인해 내리 4백여년을 두고 그 후손들의 모진 고통의 과보에 시달리다, 지혜에 눈 뜬 이의 작법(作法)으로 무거운 업보를 씻어 내린 한 예로써, 사람들은 스님의 은혜를 갚고자 십사일반 힘을 모아 낡은 암자를 새로 지으면서 ‘전생의 업과 눈병을 고쳐 비로소 눈 뜨게 했다’는 뜻으로 그 후 사명(寺名)을 ‘개목사(開目寺)’라고 하였다. 현재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천등산 기슭에 자리한 절로 문화재로 국보 제379호 원통전(圓通殿)을 소장하고 있는 사찰이기

도 하다.

이처럼 비교적 소상한 내력을 조부에게서 들었다며, 이야기를 들려준 도반스님의 맺는말이 “나 또한 그 인근 지역에서 몸 받아 나서, 출가 수행자의 길을 가는 것은, 아마도 것처럼 탁한 업을 지은 사람들의 괴로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선업을 짓는 일을 권장도록 하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은 어떤 ‘운명의 힘’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면서 씩씩히 웃었다.

전생을 알게 되면 왜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가?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해 설명할 수가 있다.

첫째, 좋은 관계, 나쁜 관계를 뜻하는 은혜, 원수 두 가닥을 대종으로 맺어진 전생 인간관계에 있어, 잘못 지어진 인연의 악연 즉 원수 사이일 경우, 얹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득보다 단연 실이다. 전생에 내게 피해를 주며 괴롭힌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이며 신상을 알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든 마주 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무사할 수 있겠는가?

금생에 전생 일을 얹으로써 “전생에 진 빚 갚거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전생 빚은 전생에 이미 다 끝난 것이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내가 왜 그 빚을 갚아야 한단 말이나?” 이처럼 전생 사연을 안 것이 시비의 빌미가 돼 사이좋은 사람간 관계도 불편하게 만드는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고, 게다가 전생을 알면 전전생을 알아 또 따질 테

고, 더 거슬러 올라가 오랜 옛일까지 시비삼아 들먹일 것이다. 그리되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모두가 온전히 제정신 가지고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정서 구조 깨트려 사회문제 확산

긍정적인 은혜 관계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전생 은혜 알고서 갚는 거야 좋은 일이겠지만 그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사회통념상 가족 사랑을 벗어난 특징인을 대상으로 한 각별한 관심과 마음 쓰는 보살핌은, 그것이 아무리 순수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테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간 이해부족과 오해의 소지를 빚으며 가정불화, 불협화음을 부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둘째, 전생 부모형제를 비롯한 육친관계를 기억하게 되면 혼란은 필연적으로 따른다. 모른다면 모를까 아는 이상, 모시고 살지는 않더라도 발걸음 하게 되고 잔정이 오가며 특별한 사이의 지인으로 지낸다면, 그저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도리상 여러 가지 힘에 부칠 테고, 전생에 혈육지간인 줄 알면서 남 보듯 하자니 마음이 걸려 이래저래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효사상을 행실 덕목의 제일 가치로 삼아 온 식구가 함께 사는 전통 가족제도가 해체되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사조에 부합하는 사안도 아니려니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갖는, 길들여진 정서구조의 조화를 깨트리며 가중되는 불안은 얼마든지 사회 문제로 확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근친상간이 우려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성(性)에 관한 한, 인간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시피, 그 위태로움은 달리 비할 바가 없다.

공자님은 안희에게, ‘내 일찍이 색(色) 좋아 하듯, 학문 즐기는 이를 보지 못했다’ 《논어》 〈학이편〉고 하였으며, 오페라 〈오이디푸스 왕의 비극〉의 줄거리 또한 인간 내면에 도사린 근친상간의 욕망을 그린 것이다.

작금에 〈신화통신〉 보도를 인용한 외신이 전하는 바, (2013년 2월 초) 중국 고위직 부패관리 90%가 정부(情婦)가 있다고 하였다.

아무도 말릴 수 없다는 남녀관계! 절제의 가능한 이성보다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감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대상에 집착하며 견잡을 수 없이 빠져드는 이 경이로운(?) 현상을 두고 문호 막심 고리키는 이렇게 말한다.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귀천 등이 가지는 잠금장치가 풀리며 미술처럼 속이고 마약처럼 빠져들게 하는 사랑의 묘약! 그 족쇄로부터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어진다고 하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다. 대상에 현혹되어 먼저 눈이 멀어지면서 사랑의 뒷(죽쇄)에 걸려 정신줄 놓고 흐느적거림을 〈큐피트 독화살〉(로마신화, 사랑의 여신)이 상징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달짝지근한 남녀관계(쾌락)에 빠져 세상이 녹아내릴 지경이다. 감각을 탐닉하는 달콤한 사랑에는 독성이 있어 즐기는 만큼 반작용적인 고통이 따른다. 마치 물속의 고기를 산 채로 물에 두면 뜨거운 햇볕에 몸을 뒤채는 것처럼, 인생 무대에서 사랑의 독화살을 맞고는 저마다 아파하고 신음하며 괴로움에 몸을 떨며 중심을 잃고 비틀거린다.



청정한 법보 베풀어 풍요로운 삶 누리게 한다

보살은 보리살타의 준말이다. '깨달음을 구해서 수도하는 중생', '구도자', '지혜를 가진 자' 등으로 풀이된다. 보살은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머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일체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도록 제도하기 위해서이다.

보살은 수행의 단계에 따라 계위(階位)가 주어진다. 초발심(初發心)은 최초 단계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행도(行道)는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수행하는 단계이다. 불퇴전(不退轉) 단계는 수행으로 도달한 경지에서 물러나거나 수행을 중지하는 일이 없음을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생보처(一生補處) 단계로 한 생이 끝나면 다음에는 부처가 되는 것을 말한다.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가 쌓은 선근공덕(善根功德)을 남을 위하여 헌신하는, 불교에서는 부처님 다음으로 소중한 존재이다.

무진의보살(無盡意菩薩)

범어로는 아크사야마티르 보디사트바(Aksayamatir-Bodhisattvah)로 <대방등대집경> 제27권에 등장하는 보살의 이름이다. 무진혜보살(無盡慧菩薩), 무량의보살(無量意菩薩)이라고도 한다.

현집 16존의 한 분이며 밀교의 금강계만다라 삼매야회(三昧耶會) 바깥쪽 단의 북방 5존 가운데 서쪽단의 보살이다. 사바세계에서 무진무여(無盡無餘)의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발심하되 위로는 다

함없는 제불공덕을 구하고 아래로는 다함없는 중생을 제도하므로 무진의보살이라 하였다. 밀호는 정혜금강(定慧金剛), 무진금강이며 종지는 비(Vi), 삼매야형은 상운택오색운(上雲澤五色雲)이다.

그 형상은 하얀 살결을 드러내어 왼손은 주먹을 쥔 허리 사이에 두고 오른손을 꽃그림을 잡았다. <대방등대집경> 제27권 <무진 의보살품>에 의하면 무진의보살은 동방으로 무수억의 세계를 지나면 불문 세계가 있고 거기에는 보현불(普賢佛)이 있는데, 이 보



현불을 모시고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하는 보살이다.

보현불이 사바의 석가모니 부처님 회상에 모인 사리불 등의 대중들을 위해 무진의 보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 보살은 일체 모든 법의 인연과보가 무진의라는 이름이 붙게 된 동기라 할 수 있다. 일체 모든 법이 가히 다할 수 없기 때문이며, 보리심을 발함이 불가진이기 때문이며, 내지는 방편이 다함이 없기 때문에 물건이라 한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을 닦으며 그 마음은 자비희사(慈悲喜捨)에 한량이 없다. 그리고 네 가지의 포섭법을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보살이다. 중생계가 다함이 있으면 이 보살의

뜻도 다하겠지만 중생계가 다하지 않는다면 이 보살의 뜻도 다함이 없다. 그래서 무진의보살이라 한다.

〈법화경〉 제25권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에 대한 인연과 자비 공능을 드러내기 위해 출현하기도 하여 우리 한국불교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보살이다. 〈대방등대집경〉에서는 이 보살이 불순세계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집설법회 중에 참석하기 위해 수많은 보살들과 함께 오는데 불가사의한 상서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안보살(普眼菩薩)

원각경(圓覺經) 〈보안보살장(普眼菩薩章)〉에 부처님의 대고중(對告衆)의 대표로 등장하는 보살이다. 종밀이 찬술한 〈대방광원각경대소〉 제6권에서는 보안보살을 일컬어 보안지보여래(普眼智輔如來)라 표현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우리나라 여말선초의 회양산 사문 함허득통(涵虛得通)이 해석한 일명 〈함허소〉 상권 〈보안장(普眼章)〉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햇빛이 두루 비추는 것을 ‘보’라 하고 명료한 근(根)을 ‘안’이라 한다. 이른바 보안이란 마치 햇빛이 두루 비추어 밝히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아 비지(悲智)를 보운(普運)하여 두루하지 않는 바가 없음을 말한다.

앞의 〈보현장〉에 이어서 보안의 물음을



제기한 것은 어째서인가. 문수는 깨달음을 표현한 것이요, 보현은 닦음을 표현한 것이니 오수(悟修)의 이치가 이미 드러났지만 닦는 방법을 밝히기 어려우므로 이 보안보살이 등장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환(幻)과 같은 삼매를 닦고 익혀 위대한 적멸 바다에 증입(證入)케 하기 위하여 기수(起修)의 방법을 열어 놓은 것이다. 자타의 신심은 신기루와 같아 본래 공하고 범부와 성인, 의보(依報)와 정보(正報)가 하나의 경계로 통한다. 유일하게 청정하여 법계에 항상 두루한 것은 이 보안보살이 관하는 바다.

이로써 방법을 삼고 이로써 관(觀)을 지으면 다른 악도의 갈래를 밟지 않고 곧바로 깨달음의 큰 길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바른 방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관은 정사유(正思惟)의 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의거하여 닦으면 어찌 그 어느 행인들 이루지 못할까 보냐. 또한 어찌 그 어느 환인들 여의지 못할까 보냐. 행이 이미 이루어지고 환을 이미 여의었다면 원각의 경지에 깨달아 들어가지 못할까를 염려할 게 뭐 있겠는가. 바로 이러한 이유가 보안보살이 보현보살 다음으로 이어서 의문을 제기한 까닭이다. 환을 여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을 알고자 한다면 <보안장>을 보라. 몸과 마음이 환이라 의보와 정보의 관이 멀다면 청정하고도 뚜렷이 밝은 부처님의 경계가 드러나리라.

보안보살은 환(幻)을 여의고 행(行)을 닦는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보적보살(寶積菩薩)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사성 기사굴산에서 <무량외경>과 <법화경>을 설할 때 대고중, 즉 청법대중이었던 팔만의 보살 가운데 한 분이다. ‘보배가 모이고 쌓인다.’라는 뜻인데 이 보살의 이름을 딴 보적부의 경전군(群)이 있다.

<승만경> <대아미타경> <부자합집경>과 같은 대승경전들도 모두 이 보적부의 경전들이며 방등부(方等部)에 속한다. <대지도론> 제7권에 ‘보적왕자보살은 폐살리국 사람이다.’라고 하였으며, 제9권에는 ‘대지도초

품중시방제보살래석론제십오(大智度初品中十方諸菩薩來釋論第十五)’라는 대목이 있다. 여기에는 ‘이때 동방으로 향하사등 제불의 세계를 지나 그 세계 가장 끝에 다보(多寶)라는 나라가 있고 보적이라는 부처님이 계시어 지금 현재 모든 보살마하살을 위하여 반아바라밀을 설한다.’라는 경의 내용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논(論)이 이어진다.

부처님의 말씀과 같아서 일체세계가 무량무변하다면 어떻게 그 세계가 가장 끝머리에 있다 할 수가 있는가. 가장 끝머리라고 하면 이는 가장자리가 있다는 상(相)에 떨어진다. 만약 세계에 가장자리가 있다면 중생도 한정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이 낱알이 무량한 아승지의 중생을 제도하여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면 다시 새로운 중생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를 다보라고 했는데 보물에는 재보와 법보가 있다. 어떠한 보배가 많아 다보라고 했는가. 즉 두 가지 보배가 다 있다. 또한 많

은 보살의 범성(法性) 등 모든 보배를 두루 갖추고 있으므로 다보라고 한다. 이 가운데 불호를 ‘보적’이라 했는데, 보적불은 곧 보적보살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보적이란 오근(五根), 오력(五力), 칠각지(七覺支), 팔정도(八正道) 등 모든 법보가 빠짐없이 집적되어 있는 보살이란 뜻이다. 이 보살이 처음 태어날 때 온갖 보물이 쏟아졌는데 땅에서 보물이 솟고 하늘에서 보물이 내렸으며 사망에서 온갖 재보가 밀려왔기 때문에 보적보살이라 한다. 또한 이 보살이 중생들에게 이익을 줌에 있어서도 재보와 법보를 아낌없이 베풀어 정신적으로 맑고 박학하며 풍요한 삶을 누리게 한다.





쌍계사 대웅전(보물 제500호)

선(禪)·다(茶)·음(音)의 근본도량 지리산 하동 쌍계사

쌍계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본사이다. 말사 43개에 칠불암, 국사암, 불일암, 도원암 등 4개의 부속 암자가 있다. 쌍계사 일원은 경상남도 기념물 제21호로 지정되어 있다. 쌍계사는 진감선사가 육조 혜능선사의 남종 돈오선을 신라에 최초로 전법한 도량이자 차의 발상지이며 해동범패를 널리 보급한 선(禪), 다(茶), 음(音)의 성지로 일컬어진다. 현재도 금강선원과 전통강원과 금강계단(金剛戒壇)이 있어 선원(禪院)과 강원(講院), 그리고 율원(律院)의 법통이 바로 선 수행도량의 명성을 떨치고 있다.

쌍계사는 723년(성덕왕 23)에 의상(義湘) 대사의 제자인 삼법(三法) 화상이 창건하였다. 삼법 화상은 당나라에서 귀국하기 전에 “육조혜능(六祖慧能)의 정상(頂相)을 모셔다가 삼신산(三神山)의 눈 쌓인 계곡 위 꽃이 피는 곳에 봉안하라”는 꿈을 꾸고 육조의 머리를 취한 뒤 귀국하였다.

그리고 한라산과 금강산 등을 두루 다녔으나 눈이 있고 꽃이 피는 땅을 찾지 못하다가, 지리산에 오자 호랑이가 길을 안내하여 지금의 쌍계사 금당(金堂) 자리에 이르렀다. 그곳이 꿈에 지시한 자리임을 깨닫고 혜능의 머리를 평장한 뒤 절 이름을 옥천사(玉泉寺)라 하였다.

1백여년 뒤, 840년(문성왕 2)에 중국에서 선종의 법맥을 이어 귀국한 혜소 진감국사(眞鑑國師)가 중국에서 차(茶)의 종자를 가져와 퇴락한 삼법 화상의 절터 주위에 심고 대가람을 중창하면서 비로소 가람의 면

모를 갖추었다고 한다. 현강왕이 이웃 산에도 같은 이름의 옥천사가 있으니 백성이 미혹할까 염려하다가 그 절터를 살펴보니 동구에 두 시냇물이 마주대하고 있어 쌍계사(雙溪寺)라는 제액을 내리게 되었다. 이로부터 옥천사는 쌍계사로 불리게 되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벽암(碧巖)스님이 1632년(인조 10)에 중건하는 등 백암, 법훈, 만허, 용담, 고산스님의 중창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동안 고색창연한 자태와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중요문화재로는 국보 제47호인 진감국사 대공탑비(眞鑑國師大空塔碑)와 보물 제380호인 부도, 보물 제925호인 팔상전영산회상도 등 보물 9점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8호인 석등,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85호인 불경책판 등 모두 30여점의 성보문화재가 있다.

대공탑비는 885년(현강왕 11) 현강왕이 입



쌍계사 전경



국보 제47호 진감국사대공탑비

적한 혜소(慧昭)에게 진감(眞鑑)이라는 시호를 추증하고 대공영탑(大空靈塔)이라는 탑호를 내려주어 탑비를 세우도록 하였는데, 887년(진성여왕 1)에 완성되었다. 신라 말기에 나타나는 탑비 양식에 따라 귀두(龜頭)는 용두화(龍頭化)되었으며, 귀부의 등에는 6각의 귀갑문(龜甲文)이 크고 간편하게 조식되어 있다. 비문은 최치원이 쓴 것으로 우리나라 4대 금석문 가운데 첫째로 꼽힌다.

보물 제380호인 쌍계사 부도는 통일신라 시대의 부도로 높이 205cm에 상대·중대·하대로 이루어진 기단 위에 탑신·옥개석·상륜이 차례로 얹혀 있는 8각원당형의 승탑이다.

쌍계사 팔상전에 자리 잡고 있는 보물 제

925호 팔상전영산회상도(八相殿靈山會相圖)는 1688년(숙종 14)에 제작된 조선 후기의 불화이다. 팔상전의 후불탱화로 봉안되어 있다. 이 불화는 비교적 큰 편에 속하지만, 화면을 압도하는 중앙의 본존불과 비교적 굵직하게 묘사된 협시보살상들 때문에 협시들의 수가 줄어들었다. 즉, 4천왕·4보살·6제자·4분신불(分身佛)과 타방불(他方佛)·4구의 팔부중(八部衆)·이청문중(二聽聞衆) 등이 본존불 좌우에 2열 종대로 배치되어 비교적 단순한 구도를 보여준다.

이밖에도 육조혜능의 초상화를 안치한 7층의 육조정상탑(六祖頂相塔)과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48호로 지정된 마애불과 아자방(亞字房)의 터가 있다.

절에서 500m 거리의 암자인 국사암(國師庵) 뒤편에는 진감국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가 살았다는 천년이 넘는 느릅나무인 사천왕수가 있고, 신라의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도를 닦았고 1205년(희종 1) 보조국사(普照國師)가 머물렀던 곳이라 하여 그 시호를 딴 불일암(佛日庵)이 있다.

쌍계사는 차와 인연이 깊은 곳이다. 쌍계사 입구 차시배지에는 ‘차시배추원비(茶始培追遠碑)’, 해동다성진감선사추암비, 차시배지(茶始培地) 등의 기념비가 있다. 차는 신라 선덕여왕 때 당나라에서 처음 들어왔는데 흥덕왕 3년(828년) 김대렴(金大簾)이 당나라에서 차나무 씨를 가져와 왕명으로 차를 심



쌍계사 십리벚꽃길

은 이후 진감선사가 쌍계사와 화개부근에 차밭을 조성, 보급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최초의 차 재배지가 된 화개는 그후 고려와 조선에 이르기까지 임금께 진상되는 ‘왕의 녹차’를 생산해왔다고 한다. 지금도 쌍계사가 있는 하동은 전남 보성과 함께 우리나라 녹차 생산의 양대산맥이다. 산등성이에 심어진 차나무들은 파릇파릇한 신록의 시원함과 함께 은은한 향을 품는다.

쌍계사로 올라가기 전에는 영호남의 화합의 장으로 잘 알려진 화개장터가 있다. 화개장터에는 지리산에서 채취한 산나물과 섬진강에서 건져 올린 수산물들이 눈으로 코로 입으로 침샘을 자극한다. 쌍계사 주변에는 또 다른 별천지가 있다. 화개천의 맑은 물은 여름철 아무리 무더운 더위도 감히 범접 못하게 막아준다. 특히 화개장터에서 쌍계사까지의 십리벚꽃길은 ‘한국의 아름다

운 길 100선’에 올라있다. 십리벚꽃길은 수령 50~80년 된 벚나무 1,200여 그루가 화려한 꽃을 피워 아름다운 선경을 방불케 한다. 하동 초입에서 섬진강을 따라 화개장터로 이어지는 19번 국도 27km 구간도 봄이면 꽃천지를 만든다.



찾아오는 길

구마고속도로를 타고 남해고속도로로 갈 경우에는 하동나들목에서 빠져나와 남원 방면으로 국도 19호선을 이용하여 계속 올라가다 하동시외버스터미널에서 약 17km 지점에 화개가 나온다.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난 지방도 1023호를 이용하여 6km 정도 올라가면 쌍계사 입구인 쌍계교가 나온다. 광주대구고속도로를 탈 경우, 남원나들목에서 빠져나와 19번 국도를 타고 구례를 거쳐 화개로 오면 된다.

지혜와 신통력으로 세상을 밝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득도 후 열 명의 뛰어난 제자를 거두어 가르치셨습니다. 이 열 분의 제자들을 각기 자신만의 특기와 개성으로 부처님의 다양한 덕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열 분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새겨봅니다.

사리자

최초에는 코올리타(목련)와 함께 산자야의 제자였다. 어느날 산정제(山頂祭 : 제사)를 구경간 두 사람은 무상을 느끼고 출가하여 산자야의 교단에 출가하였다. 어느날 왕사성의 거리에서 탁발을 하고 있는 한 사문(沙門 사자라고 함)을 만났다.

사리자 : “사문이여, 당신의 정은한 그 태도에 나는 매혹이 되었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구려. 당신의 스승은 누구시며, 그리고 그 스승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사 문 : “사문이여, 나의 스승은 석존 이옵니다.”

사문은 자신이 불제자임을 밝히고 그 스승인 석가모니에 대해서는, 자기는 비구가 된 지 얼마 안된 사람이라 그것을 자세히 설명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 요강만을 말해 주겠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경전에서는 전하고 있다.

제법(諸法)은 인연에서 생겨나고

여래는 그 인연을 말씀하신다.

제법의 소멸 역시

대사문은 이 같이 말씀하신다.

사리불은 이 말을 듣고 그 석가모니란 스



사리자

승의 가르침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를 납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리불은 이 사실을 친구인 목련에게 알렸으며, 함께 석가모니의 제자가 될 것을 결심하였다. 두 사람은 산자야를 설득하였으나 그는 완고하게 응하지 않았다. 마침내 산자야는 뛰어난 두 제자와 그 두 사람을 따라서 250명의 제자들이 석가모니에게로 가는 것을 보고 괴를 토하며 쓰러져 절명했다고 한다.

목련존자

석가모니의 십대 제자 중 두 번째는 목련존자(또는 목건련 - 못가라나)이다. 지혜제일

인 사리불에 대해 목련은 '신통 제일' 이라 한다.

목련은 왕사성 근교의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났다. 사리불과 함께 산정제를 구경 나갔다가 무상을 느끼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 둘이서 출가를 결심한다.

처음에는 산자야의 제자로 있다가 나중에 사리불과 함께 불교 교단에 귀의하게 된다. 불교 교단에 귀의한 후에도 두 사람이 함께 행동하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데바닷다의 반역 행위에 의해서 교단이 분열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 데바닷다를 따라서 교단을 빠져나간 비구들을 다시 설득해 데려온 것이 이 두 사람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때를 같이하여 입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성격은 대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리불이 '지혜 제일' 이라고 불리는 사색형의 사람인데 반하여 '신통 제일' 의 목련은 오히려 행동형의 사람이었다.

불교에서는 '사통행(四通行)' 이라는 말이 있다. 사통행은 정각(正覺)에 이르는 길에 네 가지로 분류한 것으로써, 최종적인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 빠르냐 느리냐, 그리고 또 그 길이 편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괴로움을 참고 견디어 거기에 이르는가 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낙(樂) - 고(苦), 속(速) - 지(遲)의 조합으로 네 가지가 된다. 즉 낙

속통행 - 고속통행 - 낙지통행 - 고지통행의 네 가지가 그것이다.

사리불은 낙속통행의 타입이었고, 목련은 그의 자기 평가에 따르면 고속통행의 타입인 것 같다. 사리불이 천재형인데 비해 목련은 노력형의 불교자라 할 수 있다.

누진통은 다른 종교로써는 얻어질 수 없는 불교 특유의 초능력인 것이다. 석가모니는 붓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이 누진통을 얻어 부처가 되셨으며, 깨달음을 얻은 자는 누구나 누진통을 포함한 여섯 가지의 신통력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석존은 육신통 가운데 누진통을 제외한 다섯 가지 신통력의 사용을 금지하고 계셨

다. 불교는 어디까지나 지혜의 종교이지, 다른 종교처럼 기적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석가모니의 만년 무렵의 사건이다.

코오사라국의 유리왕이 석가모니의 고국인 석가국을 침공했을 때의 일이다. 유리왕은 젊은 시절에 석가국에 유학을 했었는데, 그때 석가국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았었으므로, 말하자면 복수를 해 주겠노라고 맹세를 하고 나선 공격이었다. 석가모니는 처음에는 석가국으로 통하는 거리의 큰 나무 아래서 조용히 참선을 하고 계셨다. 두 번, 세 번까지는 유리왕도 석가모니에게 경의를 표하고 진격의 일시 중단을 명령했다. 그렇지만 끝까지 단념한 것은 아니었다. 왕의 심정은 분노에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던 것이었다. 석가국의 멸망의 날은 가까웠다. 그래서 목련은 석가모니에게 제안했다.

“어떻게 신통력을 가지고 석가국을 지켜 구원하지 않으렵니까?” 라며 석가국을 쇠을 타리로 탁 쳐 덮어 버릴 것을 목련은 간절히 진언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목련의 이 간청을 단호히 물리쳤다. 석가국 전체의 사람들이 쌓은 업(業)의 응보(應報)를 그 누가 대신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즉, 석가국이 멸망하는 것도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원인이 있다는 말이다. 그 원인

육신통

신통력에 관해서 불교에서는 ‘육신통’을 말한다.

- 1) 신족통(神足通)
원하는 장소에 자유로이 출현할 수 있는 능력
- 2) 천안통(天眼通)
사람들의 미래의 운명까지도 내다보는 능력
- 3) 천이통(天耳通)
예민한, 초인적인 청력
- 4) 타심통(他心通)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능력(독심술)
- 5) 숙명통(宿命通)
자신이나 남의 전생의 모습을 아는 능력
- 6) 누진통(漏盡通)
세계와 인생에 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목련존자

을 간파하여 그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불교의 깨달음의 지혜이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연기’의 이법이지만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곧 누진통이다. 즉 지혜를 짓쳐 두고 우선 신통력(기적)에 의해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려는 것은 큰 착각이다. 석가모니는 그와 같이 생각하여 목련에게 신통력의 사용을 금지시켰던 것이다.

그러하여 석가모니도 거리의 나무 아래에서의 좌선을 중지하셨다. 유리왕은 석가국을 공략하여 석가국의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여 버렸다. 그렇지만 유리왕 역시 귀국 후 뱃놀이를 즐기고 있을 때에, 갑

자기 인 폭풍우에 배가 전복하여 그대로 익사하고 말았던 것이다.

불교를 미워하는 외도(⇒ 타 종교)의 사람들은 이 목련 존자를 최대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석가모니의 불교 교단이 이처럼 흥성하는 것은 거기에 목련이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도적을 사주하여, 그 목련 존자를 죽이게 했던 것이다.

목련은 한 번은 그 위기를 모면했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업을 자각하고 스승인 석가모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린 후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목련 존자는 무턱대고 신통력을 사용하여 도망쳐 다니지는 않았다.





보건복지부



치매치료, 보건복지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18세부터 99세까지, 99세까지 88하게”)

중앙치매센터에서 위탁운영 중 치매상담콜센터는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및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등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음.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치매 환자가 7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치매는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으로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현행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환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치매관리 인프라를 보강하고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치매관리 체계 구축

우리나라 전국에는 현재 252개의 보건소가 있는데 이중 47개 보건소만이 치매안심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이 47개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205개소에 치매안심지원센터를 확충하여 보건소를 지원할 지역사회 치매 관리 인프라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추경을 통해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오는 12월부터 운영됩니다.

치매안심센터 외에도 전국 공립요양병원



치매는 더 이상 환자와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단단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에 치매전문병동도 확충할 계획인데요. 45
개소를 신설하여 현재 전국에 34개소에 불
과한 치매전문병동을 총 79개소로 확대합
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확충

현행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인력은 평균 1.6
명입니다. 따라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적절
한 초기 대응 및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치매안심
센터에는 전담사례관리사 등의 인력을 센터
당 25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가능

이번 치매안심센터 확충을 통해 환자와 그
의 가족은 치매 예방, 조기검진, 돌봄 및 치
료 사업을 어느 지역에서나 서비스 공백 없
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 고위험
군(인지 저하자) 및 경증 치매 환자부터 담
당 코디네이터에 의해 증상 진행 경로에 따
라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

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를 앓고 있는 만큼 치매는 더 이상 환자와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추경과
더불어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지
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단단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실시

보건소에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
으로 치매선별검사(MMSE-DS)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 시 고위험군으로 판명
된 경우 협약병원으로 안내하여 정밀검사
(진단·감별검사)를 실시하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월 536만원)인 경우 8
만원 상한으로 검사를 지원합니다.

또한 치매확진 후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 월 3만원 상한으로 치매 진료비 및 약제
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따스아리〉

탈수예방에 대하여



해오름요양원 간호담당 /
김필남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탈수현상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목적

나이가 들면서 세포내액이 감소하여 결국 전체 체액의 감소를 일으킵니다. 노인의 갈증감각 저하와 여러 가지 건강문제들이 탈수를 일으키기 쉬운 상태로 만듭니다. 이 감소는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노인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증상

탈수의 증상으로는 혼돈, 건조한 혀와 점막, 맥박증가, 소변농축 등입니다. 수분의 부족은 노인에게 감염, 변비, 방광팽창의 감소, 수분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노인에서는 수분 섭취를 감소시키는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이 있는지 평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섭취를 감소시키는 원인

- ① 갈증감각의 감소
- ② 요실금이 있는 노인에서 요실금에 대한 우려
- ③ 움직이기 힘든 노인
- ④ 치매나 우울증이 있는 노인
- ⑤ 오심, 구토, 위장관 문제가 있는 노인

예방

- 노인은 갈증감각이 저하되므로 갈증이 나지 않아도 하루 6~8컵(1,500~2,000cc)의 수분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 치매나 우울증이 있는 노인인 경우 돌보는 사람이 충분한 수분섭취를 시킵니다.
- 요실금 노인에서 수분제한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고농축된 소변은 방광을 불수의적으로 수축시켜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무더위가 기승을 떨친다고 합니다. 탈수 예방수칙을 꼭 알아두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뇌졸중(stroke)이 궁금해요



Q 뇌졸중이란 무엇일까요?

A 뇌는 우리 몸을 조절하는 기관이다. 즉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한다. 뇌의 혈관에 질환이 생겨서 뇌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이 바로 뇌졸중(stroke)이다.

Q 뇌졸중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A 뇌졸중 : 뇌출혈(출혈성 뇌졸중)
뇌경색(허혈성 뇌졸중)

Q 뇌졸중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A 뇌의 조직에는 수많은 혈관들이 있다. 뇌출혈은 뇌의 혈관이 터져서 뇌세포를 죽게 하고 뇌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뇌경색은 혈전이나 동맥경화에 의해 뇌의 혈

관을 막아서 뇌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Q 뇌졸중의 위험인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과체중 등은 뇌졸중을 발생시키는 위험인자이다.

Q 뇌졸중의 진단방법을 알아볼까요?

A 갑작스러운 편측마비, 갑작스러운 이상행동과 언어장애, 갑작스러운 시야장애, 갑작스러운 원인 모를 두통, 갑작스러운 보행 장애, 어지럼증, 운동실조 등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증세가 나타난다.

Q 뇌졸중 예방을 위한 방법을 알아볼까요?

A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과체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몸에 이로운 음식을 섭취, 운동, 나쁜 습관들을 줄여서 뇌졸중을 예방하자. 그러나 뇌졸중의 증세가 이미 나타났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자.

뇌졸중의 70~80% 정도는 초기에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뇌졸중의 증세가 발생했을 때 빠른 조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왕사 소식

제34회 백고좌법회 6월 13일 입재



법왕사 제34회 백고좌대설법회가 6월 13일 입재하였습니다. 이번 백고좌법회는 올들어 두 번째 봉행하는 법회로 이날부터 9월 20일까지 100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날 입재법회는 범어사 교수사 지오 큰스님께서 2백여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법문을 하셨습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쉬지 않고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백고좌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승대덕들을 두루 초청하여 불교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법문을 듣고 큰스님들을 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정유년 윤5월 생전예수재 봉행

법왕사에서는 정유년 윤5월을 맞이하여 지난 5월 31일부터 생전예수재 49일 기도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생전예수재란 윤달이 드는 해에 사후에 치를 49재를 살아생전에 미리 닦는 법회로 크나큰 공덕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불교의 고유한 의식으로 생전의 죄업을 참회하고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예수재는 7월 18일까지 계속되며 회향기념 삼사순례법회도 봉행할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영일스님, 스리랑카로 2년간 유학 떠나

법왕사 법사스님이신 영일스님께서 이달부터 2년간 스리랑카로 불교유학을 떠났습니다. 스님은 이미 10년간 스리랑카에서 초기불교 연구를 하고 귀국해 법왕사에서 법문과 강설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더 깊은 공부를 하기 위해 다시 2년 일정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스님의 학업성취를 기원합니다.

오백나한 250불 봉안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9월 20일 백고좌법회 회향시 1차로 오백나한상 250불 봉안식을 봉행합니다. 4층 대적광전 주불 뒤편 좌우로 모시는 오백나한상은 중생들에게 복을 주는 복전의 의미를 갖고 있어 서민들과 가장 친숙한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모연문을 보시고 많이 동참하시어 무량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생전예수재 회향 기념 삼사순례



법왕사에서는 오는 7월 20일 생전예수재 회향 삼사순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에 참배할 삼사는 경남 하동의 쌍계사와 칠불암, 전남 구례의 연곡사 등 삼사입니다. 이들 도량은 매우 유서 깊은 곳으로 국보와 보물 등 문화재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 한 번씩 참배하면 무량한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백중 영가천도재 입재

법왕사에서는 오는 7월 19일 백중(우란분절) 영가천도 49재를 입재합니다. 우란분절은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존자가 지옥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양하여 어머니를 구했다는 유래를 가진 불교의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 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불자들께서는 수희 동참하시어 선망부모의 왕생극락을 기원하시고 크나큰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윤5월 초하루 다양한 법회 봉행

윤5월 초하루인 지난 6월 24일 법왕사에서는 주지스님이 집전한 특별기도회를 비롯해 생전예수재, 백중

영가천도 49재 기도를 올렸습니다. 또한 오후 2시에는 제18회차 천일기도도 올렸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대주스님 음반 50매 법보시



대주스님께서 직접 작사 및 작곡을 하고 노래까지 부른 '옴 알바곤 염불선가' CD 50매를 법보시했습니다. 대주스님은 평소 음

반을 통해 포교활동을 해왔는데 이번에 우주의 실상을 노래하는 '옴 알바곤 염불선가'를 발매해서 새로운 포교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CD를 원하시는 법우님은 종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전예수재 회향 기념 삼사순례

법왕사에서는 오는 7월 20일 생전예수재 회향 삼사순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에 참배할 삼사는 경남 하동의 쌍계사와 칠불암, 전남 구례의 연곡사 등 삼사입니다. 이들 도량은 매우 유서 깊은 곳으로 국보와 보물 등 문화재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 한 번씩 참배하면 무량한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쌍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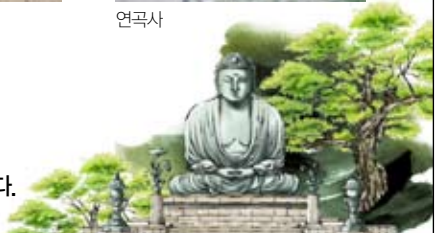


칠불암



연곡사

- 일시 : 2017년 7월 20일
- 코스 : 쌍계사 - 칠불암 - 연곡사
- 출발 : 당일 오전 7시 법왕사 주차장
- 동참 : 1인당 회비 4만원, 점심은 사중에서 준비합니다.



새로 오신 법우님

오영근 김시원 허승구 권호정

법왕사의 새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와 복덕이 넘치는 신행생활 하시기 기원합니다.

법사비 보시하신 분

지장회

사보도움 주신 분

정태중 이원하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법왕사보는 거듭 새롭게 꾸며질 것입니다.

법공양 올리신 분

대주스님(음반 100개)

공양 올리신 분

◎ 공양미 올리신 분

최태희 채용자 이세정 심보현 심규암 김수중
정 돈 김세현 성다검 김해송 김근태 강정현
성 윤 이창수 이현진 신재호 장수연 이상조
권지현 이세정 이세정 박영승 이승재
이수월심

◎ 떡공양 올리신 분

조상민 이재학 백월순 이세정 이현자 김근태
김봉원 권상태 사공순옥 채용자 이현우
양지영 김봉조 최석돌 이무량화 채용자
양문갑 정영미 양영갑 전재술 김호연 신재호
이종광 조정은 백대행심 박종성 이재학

◎ 대중공양 올리신 분

전재술 윤동현 박이자

◎ 과일공양 올리신 분

성덕하 이상봉 권상태 박경애 장수호 서정훈

조광호 정석환 윤건불심 양영갑 양문갑

이현자 박동근 김근태 김상조 이순일 김근태

윤건불심 심규암 사공순옥 채용자 조정은

김근태 채용자 윤동현 김호연 김근태 이마하심

◎ 물품 보시하신 분

양문갑 구실상화타올 밥공기 음료수

◎ 꽃공양 올리신 분

김혜경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불사 올리신 분

◎ cms 불사하신 분(5/25일~6/15일)

강유주 1만원	서필희 1만원	전성복 1만원
강춘희 2만원	성점순 1만원	전재필 5천원
김관용 5천원	손동림 5천원	전태일 5만원
김명선 2만5천원	손향숙 2만원	정순희 2만원
김명숙 1만5천원	송순보 2만원	정연이 8천원
김성미 5천원	송윤선 7만원	정옥선 1만원
김성자 1만원	신인숙 5천원	정재순 6만원
김수라 3만원	신정옥 4만5천원	조희선 2만원
김연자 1만원	심규암 1만8천원	최승임 1만원
김옥자 1만원	심영선 1만5천원	최인경 1만원
김정옥 1만원	오재대 1만원	최진석 5천원
김제순 1만원	오창혁 1만원	한천숙 1만원
김현숙 8천원	이숙희 2만원	홍경숙 1만원
나형진 2만원	이점례 2만원	황국희 2만5천원
류윤희 1만5천원	이호진 1만원	황금석 7천원
박정록 3만원	장명희 5천원	황덕선 5천원
사공관 5만원	장미아 4천원	

◎ 오백나한 불사하신 분

88 조성훈 89 김판돈 90 이시안 91 김태영
92 김동영 93 김동수

◎ 만불전 1인1원불 봉안하신 분
김정남 권태형

◎ 본당인등 올린신 분
213 정예림

◎ 산신인등 올린신 분
278 엄길태 279 방지현 280 엄보라 281 엄홍식

◎ 일년등 올린신 분
783 오무석 784 대구불교대학 785 김범수

◎ 단청등 올린신 분
원평도원한의원

◎ 대등 올린신 분

양경숙(뉴스킨)

왕생극락하옵소서

- ◆ 亡류선희 영가의 막재가 6월 1일에 있었습니다.
 - ◆ 亡도부연 영가의 기제사가 6월 2일에 있었습니다.
 - ◆ 亡서갑임 영가의 기제사가 6월 10일에 있었습니다.
 - ◆ 亡김성한 영가의 초재축원이 6월 10에 있었습니다.
 - ◆ 亡최순이 영가의 기제사가 6월 12일에 있었습니다.
 - ◆ 亡류정보 영가의 기제사가 6월 12일에 있었습니다.
 - ◆ 亡김순애 영가의 기제사가 6월 17일에 있었습니다.
 - ◆ 亡함연식 영가의 기제사가 6월 23에 있었습니다.
 - ◆ 亡구자명 영가의 초재가 6월 24일에 있었습니다.
 - ◆ 亡김재훈 영가의 초재가 6월 25일에 있었습니다.
 - ◆ 亡기금현 영가의 막재가 6월 27일에 있었습니다.
 - ◆ 亡구명서 영가의 초재가 7월 1일에 있었습니다.
-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정유년 윤5월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봉행

예수재는 죽은 후에 행할 불사를 생전에 미리 닦는 재를 말합니다. 즉, 중생이 살아 있을 때 사후를 위하여 미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왕생극락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생전예수재는 윤달이 드는 해에 지내는데 올해에는 윤5월이 들어 법왕사에서는 여법한 예수재를 봉행하려고 합니다. 불자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공덕을 쌓아 사후 왕생극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 재 : 5월 31일(음, 5월 6일)
- 동 참 금 : 설판 대시주자 20만원
- 영가천도금 : 위패 1위당 5천원

- 회 향 : 7월 18일(음, 윤5월 25일)
- 생전예수재 : 1인당 3만원

▶▶ 49재 일정표

재일	일자
사재	6월 27일 (음, 윤5월 4일)
오재	7월 4일 (음, 윤5월 14일)
육재	7월 11일 (음, 5월 18일)
막재	7월 18일 (음, 윤5월 25일)



해오름 요양원 6월 소식



보호자간담회 및 피크닉데이

2017년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 및 피크닉데이를 개최하였습니다. 우천으로 인해 마당이 아닌 1층 로비에서 스님의 인사말씀으로 시작하여 요양원 관련 질의응답과 시상식 등 보호자님들과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보호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웃음치료(라인댄스)

웃음치료 강사님의 멋진 댄스와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는 스트레칭을 함께 하였습니다. 어르신들도 음악에 맞춰 흥겹게 잘 따라하시고 덩실덩실 춤도 추시며 선생님들과 봉사자님들 모두가 하나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웃었던지 말 그대로 웃음치료 확실히 하였습니다.



행복한교육이야기 봉사단과 나들이

행복한교육이야기봉사단 가족들과 어르신들 모시고 수성못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수성못에 도착하여 잔디밭에 둘러앉아 윷놀이도 하고 준비해 온 떡과 김밥도 나누며 햇살과 바람 많이 쐬고 돌아왔습니다.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한 날씨였으나 가족 봉사자님들의 정성에 더위도 잊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미용 봉사

이제 여름이 되고 하니 조금만 길어 나와도 더워요~ 베테랑 미용 봉사자님을 덕분에 우리 어르신들은 시원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예뻐지는 본인의 모습을 보시고 흐뭇해하시고요, 어르신들의 헤어를 깔끔하고 시원하게 손질해 주시는 미용 봉사자님을 감사합니다.

| 개인 정기봉사자 | 안순정, 이경희, 손미령, 이수정, 배영숙(웃음치료), 윤수빈, 강진주, 윤성덕, 문자영(이미용)

| 단체 정기봉사자 | 수성시니어공연단(공연활동), 최단장공연단(공연활동), 써포터즈(아와나들이), 친한친구(놀이치료), 행복한교육이야기(놀이치료), 어린왕자(놀이치료), 그루터기(놀이치료), 오카리나공연단(공연활동), 하모니카공연단(공연활동)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5월)

◎ 수입내역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강병철 1만원	김수라 1만원	남기웅 1만원
강선옥 5만원	김수자 1만원	노귀자 5천원
강소남 5천원	김숙희 1만원	노수정 1만원
강영도 2만원	김순덕 1만원	도순자 1만원
고연숙 1만원	김순연 5천원	도화순 5천원
고재욱 2만원	김순태 1만원	도화순 5천원
구정대 2만원	김양순 1만원	독고보경 1만원
권계화 1만원	김영호 1만원	류윤만 1만원
권순득 1만원	김영희 5천원	문성섭 1만원
권순미 1만원	김옥희 5천원	박경란 1만원
권순영 1만원	김외자 3만원	박경자 5천원
권순칠 1만원	김외환 1만원	박귀문 1만원
권영철 5천원	김용태 1만원	박남희 3만원
권오관 2만원	김우영 2만원	박대희 5천원
권오국 1만원	김원형 3만원	박동규 5천원
권춘자 3만원	김의목 4만원	박상용 5천원
금명섭 5천원	김임태 5천원	박성숙 5천원
김경자 1만원	김정규 5천원	박성용 5천원
김경호 1만원	김정숙 5천원	박성은 5천원
김기덕 2만원	김정숙 5천원	박성후 2만원
김기수 2만원	김정순 3만원	박수진 1만원
김대현 5천원	김정임 1만원	박순남 5천원
김만기 5천원	김정자 5천원	박순영 5천원
김명옥 1만원	김주현 1만원	박원태 1만5천원
김미자 1만원	김진성 1만원	박인철 1만원
김미정 1만원	김진현 1만원	박정묵 1만원
김미희 1만원	김진현 1만원	박종규 1만원
김민주 1만원	김진현 2만원	박종환 1만원
김봉숙 5천원	김진현 40만원	박치민 5천원
김성의 1만원	김진현 5천원	박희조 5천원
김수곤 5천원	김진현 5만원	반룡사 1만원

방지현 1만원	이경자 1만원	장성규 5천원
배수현 2만원	이남희 1만원	장수정 1만원
배하수 1만원	이명숙 1만원	장수정 1만원
사공관 2만원	이명희 1만원	장시원 1만원
서동남 1만원	이병노 1만원	장우성 1만원
서치경 1만원	이병희 1만원	장재혁 5천원
성인자 1만원	이복희 1만원	장찬규 5천원
손수연 1만원	이상혁 1만원	정경석 2만원
송민경 1만원	이석규 5만원	정경숙 1만원
송정숙 5천원	이성자 1만원	정명선 2만원
시명숙 1만원	이성환 5천원	정무시 1만원
신구자 5천원	이승환 5천원	정미화 1만원
신돈식 1만원	이옥자 1만원	정민경 1만원
신세호 1만원	이용욱 1만원	정숙자 1만원
신임선 5천원	이유태 1만원	정소옥 5천원
신창호 5천원	이인순 5천원	정시영 1만원
신홍준 1만원	이임숙 2만원	정연이 5천원
신화식 1만원	이재봉 5천원	정옥선 1만원
심규암 5천원	이전희 5천원	정옥수 5천원
안경순 1만원	이점예 2만원	정인순 5천원
안명희 1만원	이정숙 1만원	정차기 2만원
안인숙 5천원	이정연 5천원	정태교 5천원
안희선 1만원	이정옥 1만원	정혜숙 1만원
양나영 5천원	이정화 1만원	정활수 3만원
양봉률 1만원	이정희 3만원	조규인 1만원
양지영 1만원	이정희 5천원	조성자 5천원
양해진 1만원	이종희 5천원	조영석 1만원
양희숙 1만원	이준우 5천원	조인성 5천원
여택동 5천원	이창수 5천원	조정자 5천원
오난옥 5천원	이채원 1만원	조창신 2만원
용마관음사 3만원	이현옥 1만원	진봉희 1만원
우정미 1만원	이호동 5천원	채옥연 5천원
유경희 1만원	이효조 1만원	최분규 1만원
유명옥 1만원	임상덕 1만원	최승임 1만원
윤윤근 1만원	임예숙 1만원	최영희 1만원

최윤희 5천원	허유미 5천원	황준원 1만원
최창숙 5천원	홍기학 1만원	황지영 1만원
한규매 1만원	홍애분 1만원	황학영 1만원
한희록 1만원	황미선 2만원	

총합계 : 2,650,000원

◎ 이달의 신규 후원 신청자

김명숙 김명미

◎ 지출내역

부식재료 구입비	: 1,099,400원
케이크 구입비	: 60,000원
기저귀 구입비	: 1,135,000원
CMS수수료	: 44,000원
금융결제원요금	: 44,000원
필요물품 구입비	: 78,760원

총지출 : 2,461,160원

-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원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후원물품 보내주신 분

최태희 어르신 보호자	: 비타민C 1박스
장해원 어르신 보호자	: 수박 1통
한을식 어르신 보호자	: 야쿠르트45개
박정록 어르신 보호자	: 요플레 24개
유세모 어르신 보호자	: 수박 1통, 참외 1Box
안태임 어르신 보호자	: 바나나박스
윤봉한 어르신 보호자	: 찐빵 5박스
임병수 어르신 보호자	: 떡 2도, 쥬스팩 50개
김영화 어르신 보호자	: 음료수 1박스
양지영	: 화장지 30만원 상당

방지현	: 요플레 50개
고은희	: 커피 1Box

해오름 요양원 새가족

신규 입소 어르신

김해경 어르신 김영화 어르신 김경순 어르신

자원봉사자 모집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시~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신청방법

- T. 053-766-5767 담당 사회복지사 이상형
- 방문접수 법원사 1층 요양원 사무실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새마을금고 9002-1643-4050-9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
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해오름 사람들

● 직원 동정

6월 30일 : 최승임 요양보호사 퇴사

어르신들을 내 부모 섬기듯 정성을 다해주신 최승임 요양보호사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 임관을 축하합니다

강선옥 원장의 자녀 김명미 양의 육군 하사 임관식이 6월 2일에 있었습니다.

후원업체 소개



하회물류(주)(www.hahoefood.com)에서는 매달 어르신들의 부식에 필요한 신선한 두부를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후원업체의 사랑과 나눔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월간 법왕사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에서는 불자 여러분의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1년 정기구독료는 2만원입니다. 구독 신청은 전화나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떤 방법이나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구독료는 사보 제작은 물론 불자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법보시에 활용되는 등 큰 공덕을 쌓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로는 법왕사 종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 053-766-3747, 팩스 053-767-6095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법왕사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 편집실

독자 원고 받습니다

월간 법왕사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투고와 사보를 읽은 후의 소감이나 각종 제언, 제안 등 후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신행생활의 체험담이나 수필, 기행문, 시 등 문학작품은 물론 사보를 보시고 난 후의 느낌이나 제언 등 무엇이든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사보에 게재하고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원고 보내실 곳

전화 | 053-766-3747, 팩스 | 053-767-6095



해오름마을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

동참금 한 가족 100만원(2명 이상 새겨드림)

문의 중무소(766-3747, 9088)

동참계좌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법왕사에서는 불교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해오름요양원을 개설,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왕사는 해오름마을 건립을 위한 한가족 한평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오름마을은 현재 부지 4,500여평을 마련하였으며 조만간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과 우리의 전통인 효행을 실천하는 방편인 요양원 건립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내 가족의 일처럼 한마음으로 모십니다

대구 한성병원 장례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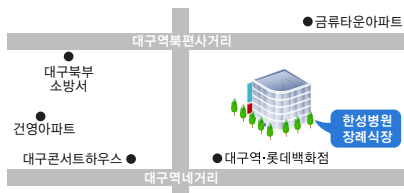
대구 한성병원 장례식장은 현대화된 쾌적한 시설과 정직, 성실한 서비스로 올바른 장례문화를 실천합니다.

- 편안한 상주실(2실 및 접견실)
- 쾌적한 지상 위치
- 사통팔통의 편리한 교통

주소 대구 북구 칠성남로30길 28

문의 대표 전화 053-253-3444 / 010-4005-4444(김중락)

찾아오시는 길





법왕사 오시는 길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천대로→신천좌안도로→법왕사로 오시던 길이 공사로 인해 이용하실 수 없게 된 관계로 **신천대로→상동교→수성못 오거리→용두교→법왕사**로 오는 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산터널 개통으로 범물동에서 법왕사까지 7분, 상인동 터널 입구에서 법왕사까지는 11분으로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신천좌안 고가도로 완공시까지 네비게이션으로 '파동초등학교'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4층 대적광전 오백나한상 봉안 모연문

법왕사에서는 종합복지관 4층 대적광전 삼신불 후불로 5백나한상 봉안을 모연하고 있습니다.

나한(羅漢)은 일체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어 더 이상 생사윤회의 흐름에 태어나지 않는 성자를 이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부처의 경지에 오른 16명의 뛰어난 제자를 '16나한'이라고 하며 부처가 열반한 뒤 제자 가섭이 부처의 설법을 정리하기 위해 소집한 회의 때 모였던 제자 500명을 '500나한'이라 하는데 나한은 인간의 소원을 성취시켜 준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당송(唐宋)시대에 유행했던 나한신앙은 삼국 후기부터 소개되어 고려시대에 크게 유행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복을 주는 '복전(福田)'의 의미로 추앙받으면서 서민들과 가장 친숙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복전인 나한상 봉안에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가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 백고좌법회 회향시 1차로 오백나한상 250불 봉안식을 봉행합니다.

- 1인 1나한 동참금 : 108만원(분할납부 가능)
- 동참계좌 ○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법왕불교대학

초·중급 및 야간반, 아함반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배워 신심과 원력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불교대학 초·중·고급 및 야간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초급반은 주지스님 직강으로 사찰예절을 비롯해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를 강의하며, 야간반은 주지스님과 외부 법사를 초빙하여 주요 경전을 강의합니다. 한편 아함경을 30년 동안 연구하신 제주도 연담스님을 초청, 2년에 걸쳐 아함경 전반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불교에 관심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초급, 중급, 야간반은 현재 개설 중입니다.

아함반은 새해 3월 신학기에 개강합니다.

수강료는 분기별 3만원(월 1만원)입니다.

개설반	법사	주제	시간
초급반	주지스님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야간반	주지스님	지장경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특강반	외부법사	주요 경전(금강경, 아미타경)	추후 공고
아함반	연담스님	아함경(2년간 연속 강의)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야간반	관일스님	법구경 특강	저녁 7시 ~ 8시 30분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나라의 안녕과 번영,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34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법왕사에서는 2017년 정유년 들어 두번째인 제34회 백고좌법회를 6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고승대덕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속으로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신라 진흥왕 때에 처음 열린 이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이 이르고 있습니다.

법왕사 백고좌법회는 1995년 처음 시작한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1~3회씩 개최하고 있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불자들에게 익숙한 법회입니다. 이번 제34회 백고좌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덕 높은 스님들을 두루 초청하여 신행생활에 꼭 필요한 팔만사천, 금구성언의 법문을 듣고 친견하는 귀중한 기회를 가질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송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實相합장



● 23일차

7월 5일
특별법문
일우스님
대구 성관음사 주지



● 26일차

7월 8일
특별법문
반산스님
양산 원각사 주지



● 29일차

7월 11일
특별법문
활안스님
사한국금강선원 총재



● 31일차

7월 13일
특별법문
자광스님
불교사회복지회주

◆ 일시 : 2017년 6월 13일 ~ 9월 20일 (100일간)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4층 대적광전 ◆ 법회 : 매일 오전 9시 기도, 법문 11시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21일차	7월 3일 圓	양관스님	동화사 승가대학장	27일차	7월 9일 圓	노휴스님	공주 행복도량 주석
22일차	7월 4일 因	해조바귀스님	서울 관음암 주석	28일차	7월 10일 圓	대현바귀스님	칠곡 정암사 주지
23일차	7월 5일 困	일우스님	대구 성관음사 주지	29일차	7월 11일 因	활안스님	사)한국금강선원 총재
24일차	7월 6일 困	효상스님	가창 선홍사 주지	30일차	7월 12일 困	경조바귀스님	대전 보현정사 주지
25일차	7월 7일 圓	성범스님	대전 구봉선원장	31일차	7월 13일 困	자광스님	불교사회복지회주
26일차	7월 8일 田	반산스님	양산 원각사 주지	32일차	7월 14일 圓	동봉스님	광주 우리절 주지



대한불교
조 계 종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해오름요양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